

市道·지역회 소식

인천 경우회

인천 경우회는 최근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불우회원을 선정하여 각 급 경찰관서 및 경우회 별로 위로금을 전달하는 한편 이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이번에 위로금을 전달받은 불우회원들은 인천 경찰청장과 산하 경찰서장으로부터 위로금을 받은 9명, 인천 경우회장과 산하 지역회장으로부터 위로금을 받은 9명 등 총 18명 등인데, 인천 경우회는 앞으로도 이들 불우회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인천경우회는 최근 시도회 원로 고문 25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경우회의 육성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한 방안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인천서부 경우회



최근 구정을 맞아 이창균 서장이 불우 警友 임형근 회원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해 회원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평소 불우 경우회원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이창균 서장은 김말암 인천서부 회장과 김영길 사무국장에게 불우 경우선배님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자신의 뜻을 전했고, 김 회장과 김 사무국장은 참전경찰 유공자로 지병으로 외출도 부자연스러워 노후를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임형근 회원을 선정, 이 서장이 직접 김말암 회장과 함께 임 회원의 집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하게 되었다.

전북임실 경우회

전북 임실경찰서 박운경 경사를 비롯한 나눔회 여경 회원들이 어려운 警友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격려금과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임실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 6명이 회비를 출자해 사랑을 베풀고 있는 나눔회는 최근 구정을 전후해 어려운 警友가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돕기로 결의했다. 그 일환으로 이들은 불우회원 박도수와 유한기 회원의 집을 방문하고 격려금과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뜻깊게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 회원과 유회원은 『후배 경찰들이 퇴직 선배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 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후배들이 있어서 영원히 외롭지 않다』고 고마워 했다.

부천 경우회

최근 이강민 회장을 비롯한 임원 일행은 관내 소사구 소재 새소망 어린이집에 라면 20박스와 과자 등을 전달하는 한편 소속 지역회의 70세 이상된 회원 및 불우회원 20명에게 백미 20킬로그램씩 전달하며 격려했다.



부산부산진 경우회



부산진 경우회가 전현직간의 유대강화로 단합을 과시하고 있다.

부산진 경우회는 평소 경우회 행사에는 현직 후배 경찰관들을 초대하고, 현직 후배들도 자체 행사 때마다 선배경우들을 초청하는 등 상호 유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우회 사무실 입구에 김춘식 회장과 박대로 서장의 이름을 공동으로 새겨넣은 대형 거울을 설치하고 유대를 결의하기도 했다. 김춘식 회장은 『우리 경우회는 경찰인들의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로 만들 것』이라면서 『현직들이 필요로 할때는 언제든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 경우회

최근 김택재 회장, 민은식 자문위원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자문위원회를 갖고 신입위원 2명을 위촉했다. 한편 중앙 경우회는 금년도 첫 이사회를 갖고 지역회 발전을 결의하는 한편 충남홍성의 용봉산에서 첫 등반대회를 갖기도 했다.

대전서부 경우회



최근 관내 음식점에서 오문영 회장을 비롯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新任 김성일 서장을 비롯한 현직 간부들과 상견례를 갖는 한편 김 서장에게 명예회장 위촉장을 전달하고 전현직간의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진구 참전경찰유공자회



최근 황인석 회장은 관내 위동 사무소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중 고등학생 20명에게 각각 15만원씩 모두 3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지안의 현상

住民 위한 최상의 치안서비스 구현

홍천경찰서, 선진 기법 도입



전병량 서장이 선진치안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강원 홍천경찰서가 허준영 경찰청장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주민을 위한 선진지역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홍천경찰서는 선진 기법을 이용한 대민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고, 그 대표적인 것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시행이다.

지난 해 3월 전국 경찰서 중 처음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경찰민원과 사건처리 과정, 경찰정책의 홍보 및 지역치안 범죄예방 활동 등의 다양한 치안 정보를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금년 2월까지 약 4만여건의 전송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하나는 지난 해 12월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한 피의자 식별 및 영상진술 녹화 시스템이다.

즉, 범죄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실을 별도로 배치해,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지 않고 편안한 심적 상태에서 진술은 물론 특수 제작된 유

리 혹은 모니터를 통해 피의자의 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음향 시스템의 활용으로 목소리를 변조해 피의자의 진술 녹음이 사실이 아닐 경우 반박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 수 있도록 했고, 빛의 밝기를 조절해 피해자가 범죄 발생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한편 이 시스템은 경찰청 범죄피해자 대책실과 지방청 단위의 견학이 이루어져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보급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에 홍천경찰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찰 충혼탑의 건립으로, 경찰서 관계자는 『홍천경찰은 복위 38선 이남 12개 면을 관할하면서 6.25 전쟁시 홍천 서석전투, 경북 안동전투 등 총 8회에 걸쳐 단독적인 전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경찰 충혼탑도 없어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홍천경찰서는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5월까지 관내 홍천읍 회망리 산 48-2번지에 조형물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전병량 서장은 『홍천 지역은 강원내륙의 교통 요충지이며, 관광휴양지일 뿐만아니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레저 및 지역 개발이 가속화되는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전 직원이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처하며 앞서가는 홍천 경찰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審判臺

경찰관 살해범 이학만

향소심 무기징역 감형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근 부장판사) 18일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 등으로 기소된 이학만(35세)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합리적 기준에 비춰 범죄자가 전혀 교화 대상이 아닐때 최후 수단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감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어려운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열중해 온 이 땅의 경찰 가족들이 피고인의 범죄로 희생을 마음 속 눈물을 기여할 수 밖에 없었지만, 사전에 계획했거나 의도했던 범죄가 아니었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에서 아직은 교화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C 커피숍에 내연녀 이 모(36세)씨와 폭행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러 갔지만 서부경찰서 소속 심모(사망당시 32세)경사 등 2명이 이씨를 긴급체포하려 하자 이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주, 역주행, 측정거부 경관입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반대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 모(44세) 경위를 불구속입건하고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 15분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테라칸 승용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앞에서 지하철 수서역까지 1km 가량을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경찰병원 영안실로 모친상을 당한 동료 경찰관 문상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대통령들이 한 경찰서에(?)”

‘전두환 경장, 김대중 경장’

전직 대통령들과 한자 이름까지 똑같은 경찰관들이 한 경찰서에 나란히 근무해 화제다.

최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인사에서 선정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전두환(32세.全斗煥) 경장이 경찰서 생활안전계로 자리를 옮겼다.

또 수사와 강력계에는 김대중(金大中) 前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김대중(38세) 경장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청와대 101경비단 근무를 시작으로 경찰에 입문한 김경장은 태권도 3단, 합기도 2단, 특공무술 1단 등 도합 6단의 무술 유단자다.

101경비단에서 무도사범까지 했다는 김경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이름 때문에 에피소드가 많았다”며 “당시 김영삼, 김대중 前대통령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동료도 있었는데 ‘김대중’이란 이름을 가진 동료는 급기야 이름을 고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웃는 모습이 김 前대통령과 많이 닮았다는 김대중(金大中) 경장.

강진서 근무 8년째인 김 경장은 “이름을 가지고 동료들이 농담을 많이 한다”며 “전두환 경장까지 경찰서로 들어왔으니 이제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앞으로 친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경찰서에는 지난 98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김영삼(金永三) 前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김영삼 순경이 근무한 적도 있어 강진경찰서는 이래저래 대통령 이름과 인연이 깊은 곳으로 주민들의 애기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 불우한 경우회원 위문

인천계양경찰서장(총경 박명렬)은 지난달 8일 인천계양경찰서 불우 경우 회원의 집으로 직접 방문 급일봉을 전달하여 선·후배의 정을 나누는 한편, 경우회원 백광우(79세)가 지난 15일 지병으로 사망하자 조화를 보내 가족들을 위로하고, 빈소를 찾은 경우회 회장 장도익 등 60여명의 경우회원들도 이 같은 소식을 듣고 극히 이해적인 일이라며 청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선·후배의 훈훈한 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강원경찰청, 혁신팀 가동 4S운동' 추진

강원지방경찰청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처음으로 혁신팀을 구성, ‘바르고 아름다운 강원경찰 만들기’를 기치로 경찰업무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경찰청은 청내 혁신팀을 중심으로 각 과·실에 ‘혁신전담관’을 지정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에서는 경무과장을 혁신지도관으로, 기능별 서무계장을 혁신전담관으로 지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4S(Stand, Smile, Speed, Satisfaction)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업무에 바른 경찰, 언행이 아름다운 경찰상 확립에 역점을 두고 경찰 혁신을 이끌 여력 방침이다.

권순주 강원경찰청혁신단장은 “4S운동이란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일어서서(Stand) 인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Smile) 대하고, 업무는 신속하게

(Speed) 처리함으로써 최상의 만족감(Satisfaction)을 주자는 취지”라며 “이는 곧 주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찰 혁신의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브리질소식〉“상파울루는 경찰의 무덤”

지난 한해 상파울루 주에서 살해된 경찰관의 수가 25명에 달하며 부상자도 442명이나 된다고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 사망자 수는 지난 2003년에 비해 31%나 늘어난 것으로 경찰관들 사이에서 상파울루 주는 ‘죽음의 근무지’로 통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범죄조직들이 갈수록 강력한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면서 “길거리에서 검문을 할 때도 권총을 손에 잡고 있거나 동료들이 모인 뒤에 행동에 나서 는 등 최대한 조심스럽게 업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재미동포, 최연소 경찰서장에 임명

재미동포 김영환(37세.미국명 에릭 김)씨가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파크 경찰국의 역대 최연소 경찰서장으로 임명됐다.

미주중앙일보에 최근 몬테레이 파크 경찰국 발표를 인용해 김 서장은 지난달 12일 루테넌트(副署長)에서 경찰서장으로 진급했다고 전했다.

김 서장은 1974년 가족과 함께 이민해 로스앤젤레스 피닉스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1992년부터 몬테레이 파크 경찰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치안개선을 통해 지역범죄로부터 동포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미혼인 김 서장은 보험 에이전트로 근무하는 동포여성과 결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문경찰 10명, 12년6개월씩 징역형

마약복용자 부부가 뇌물을 주지 않자며 집안에 가둔채 고문을 가해 1명을 숨지게 한 경찰관 10명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12년 6개월씩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간 폴라 데 상파울루의 보도에 따르면 상파울루 주 경찰 역사상 단일 죄목으로는 가장 많은 10명의 경찰관이 한꺼번에 고문치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록을 남기게 됐다.

또 문제가 된 경찰관들의 선고 형량을 합치면 125년에 달해 상파울루주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큰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2월 마약소탕 작전을 벌이던 중 상파울루시 남부 빌라 아하이에 지역에서 마약을 복용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호베르토 카를로스 도스 산토스(35세)와 나타샤 히베이로 도스 산토스(20세) 부부를 4~5시간동안 집 안에 가둔채 집단구타를 가해 골절 등 상처를 입혔다.

이들 경찰관은 이전에도 이 부부를 마약복용 혐의로 체포했다가 뇌물을 받기로 하고 풀어주었으나 돈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부부가 같은 혐의로 또 다시 체포되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집단구타를 가했다.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朴鍾九 회원

(서울교통방송본부장)



잠결에 닭울음 소리
반기운 미음에 새벽잠도 잘라 내고
일어나 보니 꿈인 듯 아닌 듯,
정원 겨울 바람이 차가만 합니다.

오늘따라 으름 새벽 안개는
경남 산청의 내 고향집 그것과 참 닮았습니다.
그 겨울,
닭울음 소리보다 먼저 일어난 어머니는
여덟 식구 더운 밥을 짓느라
달그락 달그락 아침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 소리 자장가인양 솜이를 끌어 당겨
까뚝뚝 새벽잠에 빠지다가
구수한 밥냄새 피자는 아침이었습니.

그 시절 밥 냄새는 왜 그리도 구수했던지요.
이 아침,
새삼스레 고향집 아침밥 짓는 냄새가
이리도 그리운 것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된 세상이지만
마음이 고픈 사람들이 많은 까닭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온기만한 것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을유년 새해에는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희망을 놓고

더운 국물에 밥 한 그릇 말아 먹은 듯
가슴에서 후끈한 온기 내뿜으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30년의 공직생활동안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해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과 사회의 역할을 고민하며
부산교통방송에 몸담고 지내다가
이번에 또 자리를 옮겨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개방형직위인 교통방송본부장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서울교통방송본부를 위해
일할 소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늦은 나이에 이런 새로운 도전이지만
곧 전국 최초의 자치정보채널인
‘TV서울’의 개국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크고 어려운 자리를 맡아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자리에서 맞는
2005년의 아침은 방송의 임무를
고민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방송 환경속에서
청취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는 방송,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방송,
매체를 통해 교감하는 쌍방향 방송,
생각만으로도 벌써 마음 밑바닥이
드거워집니다.

창 밖을 보니
새벽별 하나가 남은 빛을 다하고
아침에게 자리를 내어 줄 채비를 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따듯하고 깊은 정
감사의 마음으로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을유년 올 한해
소망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 박종구 회원은 최근 교통방송본부장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서울교통방송 본부장에 취임했다. 박 회원은 중앙대 정외과를 졸업한 후 경찰간부 21기로, 경찰청 김포국제공항 경찰대장, 용인·고양·강남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교통지도부장, 보안부장, 전주대학교 법정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치안감으로 승진 후 명예퇴직했다.